

모호한 전환점:

중국공산당의 11기 3중전회에 대한 재고

안치영 |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중국공산당의 11기 3중전회는 개혁체제가 형성되고 개혁개방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전환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11기 3중전회는 개혁 문제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문혁문제를 해결했으며 그 과정에서 권력구조의 재편과 정책적 전환이 있었다. 그런데 11기 3중전회에서 화궈핑은 권위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재하였으며, 권력구조의 재편도 문혁시기 숙청된 노간부들의 복권을 통하여 그렇게 개혁적이지 않은 보수파와 개혁파의 연합 체제를 형성하였다. 또한 문혁문제의 해결과 사상해방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개혁개방은 화궈핑의 정책과 단절을 통해서가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결정되었다. 그런 점에서 11기 3중전회의 전환은 그렇게 자명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모호한 것이었다.

주제어: 11기 3중전회, 개혁개방, 개혁체제, 역사적 전환점, 모호한 전환

I. 서 론

현재 중국의 사회경제체제가 다양화, 시장화와 세계경제체제로의 편입으로 특징지어진다면, 그것은 1949년 혁명과 그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변화로부터의 이탈과 역전이라고 할 수 있다. 1949년 수립된 사회주의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이 그러한 특징을 가지게 된 것은 개혁개방을 통하여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러한 변화를 초래한 개혁개방은 1978년의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11기 3중전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기 3중전회에서는 “당 사업 중심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의 전환”을 선언하여 개혁개방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개혁의 ‘총설계사’ 덩샤오핑(鄧小平)이 권력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는 점에서 개혁체제가 형성되었다고 평가된다. 11기 3중전회 이후 부분적인 굴절이 있기는 했지만, 개혁은 역전시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으며, 최고지도자로서 덩샤오핑의 지위도 흔들림 없이 유지되었다. 그런 점에서 11기 3중전회가 개혁과 개혁체제의 기점이라는 데에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다. 중국공산당은 1981년 11기 6중전회에서 통과된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대한 결의(이후, 건국 이래 역사결의)”에서 11기 3중전회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中共中央文獻研究室, 1985: 41-46). 그리고 개혁 이후 발생한 정치·경제·사회적 기제의 전환을 설명하기 위한 역사적 시대 구분의 필요가 그러한 평가를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외부에서도 확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했다.

그런데 11기 3중전회에서 개혁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없는 경제개혁”이라는 중국 개혁의 출발이자 농촌개혁의 핵심인 ‘호별영농제(包產到戶)’는 여전히 금지되었다.¹ 또한 덩샤오핑이 사실상의 최고지도자가

1. 11기 3중전회에서 통과시킨 “農村人民公社工作條例(試行草案)”의 第35條에 “...호별영농제(包產到戶)와 ‘경지를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경작하는 것(分田單幹)’을 불허한다(不許包產到戶, 不許分田單幹)”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中共中央文

되었다지만, 덩샤오핑은 물론 당시 최고지도자 화궈펑(華國鋒)의 공식적 지위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다시 말해서, 11기 3중전회에서는 개혁의 핵심을 부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최고 권력자의 정치적 위상 변화 없는 권력 교체를 이룩하였다. 그것은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11기 3중전회 자체는 그렇게 자명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겔(Ezra F. Vogel)의 지적대로 정작 전환점이라는 11기 3중전회와 중앙공작회의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Vogel, 2004: 9).

11기 3중전회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회의 공보와 몇 가지 연설을 제외하고는 알려진 자료가 별로 없었다.² 그런데, ‘개혁개방 20주년’인 1998년을 전후하여 몇 가지 중요한 회고록이 출판되었으며,³ 최근에는 비공개 내부 자료 등을 이용한 중국에서의 연구와 연보 및 전기 등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발표되고 있다.⁴ 그렇지만 민감한 정치적 문제에 대한 연구에 제약이 존재하는 중국에서는 회고록에서 밝히는 부분적인 사실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공식적 정치적 판단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술적 연구가 주류라면, 중국 외부에서는 자료의 문제로 인하여 개설적인 사실에 대한 제한적인 소개 이외의 분석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⁵

이 글에서는 우선, 최근에 발간된 자료와 회고록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11기 3중전회의 의제와 회의 경과 및 결정을 포함하는 구

獻研究室編, 1982: 42-60).

2. “11기 3중전회 공보”와 “건국 이래 역사결의” 및 그 주석본의 설명(中共中央文獻研究室, 1985: 470-475), 덩샤오핑의 중앙공작회의 연설(鄧小平, 1982), 예젠잉의 중앙공작회의 폐막식 연설(葉劍英, 1996), 천윈의 12월 10일 중앙공작회의 동북조(東北組) 발언(陳雲, 1995), 후차오무가 1979년 1월 6일 중국사회과학원에서 행한 11기 3중전회에 대한 보고(胡喬木, 1993) 등이 그것이다.
3. 于光遠(1998a); 于光遠·王恩茂等(1998); 朱佳木(1998) 등이 대표적이며, 그 외 『百年潮』, 『炎黃春秋』, 『黨的文獻』 등의 중공당사 관련 잡지에도 많은 회고록이 발표되었다.
4. 蕭冬連(2004; 2006; 2008); 李正華(2002); 程中原·王玉祥·李正華(1998); 張樹軍·高建民(2001); 中央黨史研究室第三研究部(2005); 陳雲의 연보와 전기(中央文獻研究室(2000; 2005); 鄧小平 연보(中央文獻研究室, 2005) 등이 그것이다.
5. 중국외부의 연구에서도 11기 3중전회를 개혁개방의 기점으로 잡고 있지만, 11기 3중전회 자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정치사 연구(Harding, 1987; Baum, 1994; Meisner, 1996 et al.)나 경제사 연구(Naughton, 1995) 등에서 기술되고 있을 뿐이다.

체적 내용을 재구성하려고 한다. 다음으로는 11기 3중전회에서 발생한 변화와 그 원인을 살펴보고, 그러한 변화의 개혁과 개혁체제 형성에 대한 상관관계 및 그것의 개혁에 대한 의의를 살펴봄으로써 11기 3중전회의의 의의를 재평가해 보려고 한다.

II. 중앙공작회의와 11기 3중전회의 개최와 의제

11기 3중전회는 1978년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개최된 회의였다. 5일간 개최된 회의가 그렇게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은 직전인 11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36일간 개최된 중앙공작회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11기 3중전회는 사실상 중앙공작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당의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비준한 회의였다. 그렇기 때문에 11기 3중전회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중앙공작회의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11기 3중전회는 중앙공작회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11기 3중전회에 대한 논의는 중앙공작회의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1기 3중전회는 사실상 중앙공작회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것이 중앙공작회의와 당 중앙위원회의 일반적인 상관관계를 의미하지 않는 것은 물론, 11기 3중전회와 중앙공작회의가 서로 연관된 회의로 계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앙공작회의와 11기 3중전회는 원래는 서로 무관한 독립적인 의제와 일정을 갖는 회의로 계획되었지만, 중앙공작회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제 외의 문제제기에 의해 중앙공작회의의 의제가 변화되었다. 그에 따라 중앙공작회의에서 결정된 의제들을 공식화하기 위해 그 직후 개최하기로 되어있었던 중앙위원회에 원래의 의제와 더불어 새로운 의제를 포함함으로써 두 회의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때 제기된 새로운 의제가 개혁개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개혁개방이 중앙공작회의를 포함한 11기 3중전회의 중심

의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11기 3중전회는 왜 개혁개방으로의 전환점으로 받아들여지는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앙공작회의와 11기 3중전회에서 도대체 무엇이 논의되었으며 그것과 개혁개방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중앙공작회의와 11기 3중전회 모두 회의 개최의 자세한 결정 과정에 대하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비슷한 시기 혹은 동시에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공작회의는 정치국의 동의를 거쳐 10월 말경 회의 개최가 결정되어, 10월말 또는 11월 초에 참석자들에게 통보되었으며 원래의 회기는 20여일로 예정되었다(于光遠, 1998a: 13; 朱佳木: 47). 이에 비하여 11기 3중전회는 12월 7일부터 3일간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다(朱佳木: 47, 57). 두 회의는 비록 연속하여 개최되기로 되어 있었지만, 성격뿐만 아니라 의제도 완전히 다른 독립적인 회의로 예정되어 있었다.

미리 결정된 중앙공작회의의 의제는 11월 10일 화궈핑이 개막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제문제에 대한 세 가지 공식 의제와 한 가지 토론 과제로 구성되어 있었다(于光遠, 1998a: 25).⁶ 첫 번째 의제는 농업을 기초로 하는 방침의 관철과 농업 생산 제고 문제였다. 그것을 위해 “농업 발전속도 가속화를 위한 결정(關於加快農業發展速度的決定)”과 “농촌 인민공사 공작조례 <시행 초안>(農村人民公社工作條例 <試行草案>)” 등 두 가지 문건이 준비되었다. 두 번째 의제는 1979년과 1980년의 경제 계획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문건이 준비되어 있었다. 세 번째 의제는 리셴넨(李先念)이 국무원 이론회의(國務院務虛會議)에서 한 연설에 대한 토론이었다.⁷ 그런데 화궈핑은 이 세 가지 의제를 토론하기 전에 우선 1979년 1월부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당의 전국 사업 중심을 전환하는 문제를 토론하도록 정치국에서 결정

-
6. 정식의 의제는 미리 결정되어 토론 문건이 준비된 것을 의미하며, 당 사업 중심의 이전 문제는 사전 준비 없이 자유 토론 의제로 주어졌기 때문에 회의 의제와는 별도의 토론 과제로 제기되었다.
 7. 국무원 이론 회의는 1978년 7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北京에서 개최된 회의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속도 문제에 대한 논의였다. 회의에서는 외자 이용과 외국 선진 기술과 설비의 도입을 강조하였으며, 경제 관리체제의 개혁 문제와 관련하여, 경제 수단과 경제 조직의 역할의 충분한 발휘와 전문화, 기업의 자주권 확대 실시 등을 논의했다(李先念, 1992: 381 注 1).

했다고 밝혔다(朱佳木, 1998: 8). 이에 비하여 11기 3중전회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央紀律檢查委員會)의 신설과 그 인선이라는 당의 조직 기구 개편을 위한 회의로 계획되었다(朱佳木, 1998: 47, 57).

그러나 회의 개최 후 당 사업 중심 전환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천윈(陳雲)이 문화대혁명(이하, 문혁) 시기의 여러 문제들을 제기함으로써, 회의의 중심 의제가 문혁 시기의 역사 문제로 전환되었다. 문혁 시기의 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그와 관련해서 벌어졌던 진리표준토론(真理標準討論) 문제 등을 의제화시켰으며, 그에 따라 이른바 문혁 시기의 ‘억울하고 날조되고 잘못 처리된 사건(冤假錯案)’에 대한 ‘평반(平反),’⁸ 문혁시기 인물들에 대한 재평가, 문혁과 마오쩌둥에 대한 평가 문제 및 그와 관련된 지도부의 책임과 인선 문제 등이 의제가 되었다. 이러한 중앙공작회의의 의제 전환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인사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앙위원회의 의제 조정이 필요했다. 그에 따라 중앙위원회의의 의제를 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공작회의에서 독자적인 회의 문건을 작성하지 않고 중앙위원회에서 중앙공작회의를 종합 결론짓도록 함으로써 서로 다른 성격과 내용의 두 회의가 하나의 회의로 통합되게 되었다.⁹

중앙위원회는 중공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사전에 논의된 것에 대하여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합법적 권위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11기 3중전회의 실제 내용은 중앙공작회의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공작회의에서는 회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제를 중심으로 원래의 의제가 같이 논의되었으며, 이어서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는 중앙공작회의에서의 논의 결과와 더불어 원래의 의제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중앙공작회의와 11기 3중전회에서 광범위한 서로 다른 의제가 논의되고 처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전환점으로서

8. ‘평반(平反)’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된 판결과 잘못된 정치적 평가를 바로잡는 것”으로 복권과 비슷한 개념이다. 그런데 ‘평반’은 법적·정치적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원직 회복 또는 배상이 수반된다.

9. 이는 화귀평이 중앙공작회의 폐막 연설에서 “중앙공작회의와 3중전회의 회의의 내용을 함께 전달하는 것이 중앙정치국의 의견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3중전회를 마칠 때 정한다”고 한데서도 증명된다(于光遠, 1998a: 253).

11기 3중전회는 바로 그러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제들에 대한 결정의 총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III. 중앙공작회의와 11기 3중전회의 논의와 결정

36일간 개최된 중앙공작회의에서는 회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혁시기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와 원래의 의제였던 경제문제에 대한 논의 등 크게 두 가지 범주의 의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역사문제는 그와 관련된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최고위층의 인사문제를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 뒤이어 개최된 11기 3중전회에서는 그러한 논의의 결과를 당의 권위적 결정으로 공식적으로 추인하고 원래의 의제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신설과 인선 등을 결정하였다.

1. 역사 문제에 대한 논의와 결정

중앙공작회의 개최 이틀 후인 11월 12일 천원의 문제제기 이후 문혁 문제가 회의의 중심 의제가 되었다. 천원은 보이보(薄一波), 타오주(陶鑄), 평더화이(彭德懷) 등 문혁 혹은 그 이전 시기에 숙청된 간부들의 문제 해결, 텐안먼(天安門)사건 문제, 그리고 문혁시기 Kangsheng(康生) 문제 비판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한 천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이후 회의의 중심 의제가 문혁 문제로 전환되었다.

그것은 문혁이 남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박한 정치적 과제였다는 것과 관련된다. 문혁 종결 이후에는 문혁시기 발생한 정치 사회적 균열과 피해자 문제의 해결이 절박한 과제로 대두되었지만, 마오쩌둥의 지명을 그 정당성의 원천으로 삼는 화귀평체제는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문혁의 부정과 마오쩌둥에 대한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문혁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

었다. 그런데 1978년 중반이후 진행된 진리표준토론을 통하여 그러한 화귀평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의 공유가 이루어졌다(Schohals, 1991; 안치영, 2004). 그러한 상황에서 당의 최고 원로의 한 사람인 천원의 문제제기는 문혁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천원의 문제제기 이후 문혁 문제에 대한 논의는 1976년 텐안먼사건 문제로 부터 시작되었다. 텐안먼사건은 1977년 초부터 그 재평가 문제가 제기된, 화귀평체제의 정치적 논쟁의 핵심의 하나로 마오쩌둥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원리인 ‘양개범시(兩個凡是)’의 견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였다.¹⁰ 텐안먼사건의 평반은 중앙공작회의가 막 시작된 11월 15일 『베이징일보(北京日報)』와 다음 날 『인민일보(人民日報)』, 『광명일보(光明日報)』에서 텐안먼사건 평반을 보도함으로써 기정사실화되었다.¹¹ 11월 18일 화귀평도 텐안먼사건 당시의 시문집인 『텐안먼시초(天安門詩抄)』의 제목을 직접 자필로 적어 줌으로써(于光遠, 1998b) 그것에 대한 동의를 표시했다. 이러한 사실은 화귀평체제의 이론적 기초였던 양개범시의 부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문혁 시기의 문제 해결에 대한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의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귀평은 회의에서 진행된 논의를 종합하여 정치국 상무위원회(또는 정치국)의¹² 논의를 거쳐 11월 25일 텐안먼사건 평반, 1975년 말부터 1976년까지 덩샤오핑을 비판한 ‘우경적 재평가 시도에 대한 반격(反擊右傾飄案風)’에 대한 잘못 인정, ‘2월 역류’에 대한 완전한 평반, ‘61인 사건’에 대한 평반, 평더화이, 타오주 문제 재평가, 양상쿤(楊尙昆) 평반, 강성, 시에푸쯔(謝富治) 문제에 대한 조사 및 기타 지방 범위의 사건에 대한 타당한 처리 등을 선언한다(于光遠, 1998a: 105-106). 같은 날 화귀평 등 5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은 베이징시 당 서기와 공청단 서기 등으로부터 텐안먼사건

10. 1977년 3월의 중앙공작회의에서 이미 천원, 왕전 등이 덩샤오핑 복권을 요구하면서 텐안먼사건에 대한 복권도 요구하였다(程中原 外, 1998: 43-45).

11. 텐안먼사건 ‘평반’의 자세한 과정에 대하여는 于光遠(1998b) 참조.

12. 于光遠은 화귀평의 선언이 정치국상무위원회의의 동의를 거쳤을 것이라고 보지만(于光遠, 1998a: 105-106), 朱佳木은 19일 화귀평의 후베이성위(湖北省委) 책임자와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14일 덩샤오핑 귀국 후 정치국상무위원회의에 뒤이어 정치국 회의를 개최했을 것이라고 본다(朱佳木, 1998: 53).

평반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에 관한 보고를 듣고 그 자리에서 진리표준토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于光遠, 1998a: 102-104).

11월 25일 이후의 회의는 문혁시기 사건들에 대한 평반과 진리표준토론의 전개를 저지하고 양개범시를 견지하는 ‘범시파(凡是派)’들에 대한 비판과 책임 문제로 전환된다. 그런데 범시파는 문혁이후 형성된 화귀평체제의 핵심적 두 축의 하나로 문혁 시기 승진한 문혁수혜자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세력이었다.¹³ 양개범시를 주창하고 평반을 저지한 것과 관련하여, 중공중앙 부주석이자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관공청 주임을 겸직하고 당의 이론과 선전을 관장하던 왕둥싱(汪東興)을 직접 거명한 비판이 이루어졌다(于光遠, 1998a: 115-118). 그리고 정치국 위원이자 1976년 텐안먼사건 당시 베이징 시 서기였던 우더(吳德)는 텐안먼사건과 관련한 상황 설명과 자아비판을 해야만 했다(于光遠, 1998a: 126-8). 또한 진리표준토론을 직접적으로 저지했던 범시파의 이론가인 중앙관공청 부주임 겸 마오쩌둥 저작출판편집위원회(毛澤東著作出版編輯委員會) 부주임 리신(李鑫), 마오쩌둥저작출판편집위원회 부주임 우령시(吳冷西)와 후성(胡繩), 『홍기(紅旗)』 편집장 승푸(熊復), 중앙관공청 부주임이자 중앙경위국(中央警衛局) 부국장 쟡야오즈(張耀祠) 등도 비판을 받았다(于光遠, 1998a: 137).

이러한 비판과 자아비판은 그들의 책임 문제와 인책 및 그에 따른 지도부 재구성 등 인사 문제와 이와 관련된 기구 개편 문제를 의제화 시켰다. 우선, 양개범시를 지도 사상으로 했던 왕둥싱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부에 대한 인책과 더불어 범시파들이 맡고 있던 직무에 대한 조정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한 논의에는 부주석,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중앙위원 등의 충원 문제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었다. 그런데 이 당시 중국의 정치 변동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투쟁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지만(즉 사실상 그러한 권한을 박탈하지만)”, “충원만 하고 제명은 하지 않는다(只進不出)”라는 의견이 덩샤오핑에 의해 제기되고, 그에 따라 공식적인 직위 박탈은 논의되지

13. 다른 한 축은 문혁시기 숙청되지 않았던 예젠잉, 리첸넨 등 소위 노간부 문혁 생존자 집단이다.

않았다(于光遠, 1998a: 181; 朱佳木, 1998: 57-8). 그러나 왕똥싱 등 범시파들이 장악하고 있던 문혁 시기의 ‘억울하고 날조되고 잘못 처리된 사건’의 산실인 중앙전안조(中央專案組)와 중앙경위국, 마오쩌둥저작편집위원회판공실 등의 기구 조정 문제가 광범위하게 논의되었다(于光遠, 1998a: 181-192).

그 결과 중공 고위층의 인사 조정과 부분적인 기구개편이 있었다. 인사조정을 통하여 주로 문혁 피해자 노간부들의 복귀가 이루어진 반면 범시파들은 사실상 실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천윈이 정치국 위원과 정치국 상무위원 및 부주석으로 선출되었으며, 덩잉차오(鄧穎超), 후야오방(胡耀邦), 왕전(王震)은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또 문혁 피해자 노간부 9명을 중앙위원으로 충원하여 중국공산당 제12차 전국대표대회(12차 당대회)에서 추인받도록 하였다. 그런데 범시파 지도자들은 최고 지도자로서의 명의상의 직위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실권을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겸직하였거나 장악하고 있던 실무에 대한 권한도 박탈당했다. 왕똥싱은 중앙판공청(中央辦公廳) 주임, 중앙경위국 국장, 8341부대 정치 위원 및 당 위원회 서기, 마오쩌둥저작편집위원회판공실 주임 등 일체의 직무를 박탈당하고, 당 부주석과 정치국 상무위원직만 유지했다. 중앙선전부장 장평화(張平化)는 후야오방으로 교체되었고, 야오이린(姚依林)이 중앙판공청 주임으로, 후차오무(胡喬木)가 마오쩌둥저작편집위원회 판공실 주임으로 임명되었다. 당 중앙의 일상 업무를 책임지는 비서장(秘書長)을 신설하고 후야오방을 비서장에 임명했다. 이러한 사실은 범시파들이 명의상 지도 직위를 유지하였지만 실무 영역에서 실권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문혁 피해자들에게 이양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조직기구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중앙전안조의 해체와 전안자료의 조직부 이관이다. 문혁 초기 설립된 중앙전안조는 강성, 장칭(江青)이 직접 지휘한 당·정·군 고위층 관련 중요 사건에 대한 전문 조사 기구였다.¹⁴ 문혁시기 전안(專案) 자료는 간부,

14. 문혁 초기에서 중기까지 장칭과 강성이 전안에 대한 권한을 장악하였으며, 세 개의 전안판공실(專案辦公室)을 통하여 당·정·군의 주요 지도자들을 조사했다. 제1 전안 판공실은 당과 정부의 전안을 담당하고, 제2 판공실은 군대, 제3 판공실은 이른바 외국과 내통한 자에 대한 전안을 담당했다(中共中央組織部 外, 2000<6卷>: 8). 중

특히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안조와 전안 자료를 관할하던 범시파는 그것을 통하여 간부들에 대한 조정과 통제가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중앙에서 1978년 6월 중앙전안조의 자료를 중공중앙 조직부로 이관하도록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왕똥싱, 지딩케이(紀登奎), 우더 등은 중앙전안조에서 조사한 사건은 자신들이 관할했던 것으로 린빠오(林彪)와 사인방(四人幫)의 관여가 없었고, 마오쩌둥 주석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재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했었다(中共中央組織部, 1999: 187; 戴煌, 1997: 75, 114-120).¹⁵ 그러나 11기 3중전회 중인 12월 19일 모든 자료의 조직부 이관과 중앙전안조의 완전한 해체가 결정된다.¹⁶ 전안조의 해체와 전안 자료의 조직부로의 이관은 범시파들이 간부들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수단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사상해방’의 결정이었다. 사상해방은 덩샤오핑에 의하여 공식화되었지만, 역사문제 해결의 전제로서 양개법시의 부정과 그것을 위한 진리표준토론의 결과였다. 중앙공작회의에서는 진리표준토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양개법시를 폐기하였으며, 그것을 대신하여 덩샤오핑은 사상해방과 실시구시를 주장하였다(鄧小平, 1982). 그러한 사상해방은 당 이념의 전환을 말하는 것임과 더불어 덩샤오핑이 사상 문제에 관한 주도권을 장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경제문제에 대한 논의와 당 사업 중심의 전환 결정

경제문제는 중앙공작회의의 원래의 의제였으며 그것을 위한 전제로서 당

양전안조에 관해서는 Schoenhals(1996) 참조.

15. 1978년 6월 9일 왕똥싱은 중앙전안조 제1, 제3 관공실 조사 안건 중 인민 내부 모순으로 결론 난 자료는 조직부로 이관할 수 있지만, 적대적 모순으로 결론 난 자료는 이관할 수 없다고 했다. 그것은 결국 중요한 사건에 대한 자료는 이관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했다(戴煌, 1997: 115).
16. 이 당시에는 중앙전안조 제1, 제3 전안관공실과 ‘5·16 전안 연합소조(聯合小組) 관공실’이 존속하고 있었다(宋任窮, 1996: 78).

사업 중심의 전환 문제가 논의되었다. 그런데 경제문제와 당 사업 중심 전환 문제에 대하여는, 농업 문제 문건에 대한 이견과 불만을 제외하고는, 이견도 크지 않았고 관심도 많지 않았다(于光遠, 1998a: 60). 1979~80년 경제 계획 문제는 지방과 각 부문에서 자료를 준비해 와서 토론을 하였지만, 제 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이미 확정된 방침에 기초한 것이었기 때문에 실무상의 논의에 지나지 않았다(于光遠, 1998a: 65). 또한 덩샤오핑이 11월 27일 체제와 커다란 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하여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인식되었다(朱佳木, 1998: 57). 뿐만 아니라 국무원회의는 경제개혁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이 결정된’ 회의에서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于光遠, 1998a: 72).

“회의 공보(會議公報)”에 의하면, 경제문제에 대하여는 원래 준비되었던, 농업문제에 대한 두 개의 문건과 1979년과 1980년 경제 계획이 통과되었다. 농업문제 문건에 대한 이견과 불만이 있었다고 하지만, 농촌개혁의 핵심인 호별영농제가 여전히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개혁의 내용들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확실하다. 물론 개혁의 핵심적 방향인 시장화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그것이 11기 3중전회에서 경제정책과 관련한 진전이 전혀 없었던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1기 3중전회 공보에 의하면, 1979년 하곡(夏穀) 수매 가격을 20% 인상하고, ‘인민공사 사원의 텃밭(自留地)’과 부업(家庭副業) 및 농촌 시장(集市貿易)을 사회주의의 보완 부문으로 인정하는 등 농업 정책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또한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의 하방(下放), 지방과 기업의 경영관리자주권의 확대, 정부기구 간소화, 당정부기업 분리 등의 경제 관리체제 개혁과 평등하고 호혜적인 대외경제 합작 등 경제 체제 개혁과 관련된 중요한 원칙이 표명되었다. 이것은 ‘권한 하방과 이윤양도(放權讓利)’라는 초기 개혁과 개방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것만으로 개혁개방이 결정되었다고 하기는 미흡하다.¹⁷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은 11기 3중전회 공보 작성 과정에서 공보작성자에 의해

포함된 것으로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이었다(于光遠, 1998a: 71-2)는 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회의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지도 못했다.

그와 더불어 11기 3중전회에서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의 당 사업 중심의 전환이 선언되었다. 당 사업 중심의 전환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국에서 합의되어 화궈핑에 의해 제기된 의제였다.¹⁸ “건국 이래 역사 결의”에 따르면, 그러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의 당 사업 중심의 전환은 20년 가까이 지속된 ‘계급투쟁 중심(階級鬭爭爲綱)’이라는 구호의 과감한 포기과 개혁개방의 선언으로 이해된다(中共中央文獻研究室, 1985: 41-42).

그 이전 당과 정부의 문건에 관용적으로 등장하던 계급투쟁 중심이라는 구호가 “11기 3중전회 공보”에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계급투쟁 중심이 ‘과감하게’ 포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계급투쟁 중심이라는 구호는 과감하게 포기되었을지라도 계급투쟁 자체는 여전히 포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과 당 사업 중심 전환이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지도 않았다.¹⁹ 11기 3중전회 공보에서는 “이제 전국 범위에서 린뽌오, 사인방을 폭로비판하는 군중 운동이 기본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 전체 당 사업 중심 전환의 조건이 구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화궈핑 동지가 중앙정치국을 대표하여 제기한 결정에 일치 동의하여, ... 전국적 범위에서 린뽌오, 사인방을 폭로비판하는 대규모 군중 운동을 즉시 과감하게

-
17. 마이스너도 3중전회에서는 장기적인 경제 개혁에 대한 시사는 거의 없었다(Meisner, 1996: 102)고 보며, 노턴도 회의 자체에서는 중요한 결정이나 개혁이 없었다(Naughton, 1995: 74)고 본다.
 18. 그것이 화궈핑이 당 사업 중심 전환을 처음으로 제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후야오방은 1980년 11월 19일 정치국회의의 발언에서 당 사업 중심의 전환을 덩샤오핑이 1978년 9월 동북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胡耀邦, 1982: 745). 누가 그 문제를 처음 제기했는가와 상관없이 화궈핑이 의제로 제기했다는 것은 그 자신도 그것에 동의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경제건설이 화궈핑체제와 화궈핑 자신의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19. 11기 3중전회 공보에서는 마오쩌둥의 표현을 빌려 “대규모 폭풍우식의 군중 계급투쟁은 기본적으로 종결되었지만,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파괴하려는 극소수 반혁명분자와 형사범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계급투쟁은 조금도 느슨하게 해서 안 된다”고 함으로써 여전히 계급투쟁을 강조하고 있다(中共中央文獻研究室, 1982: 3).

끝내고, 전체 당의 사업 중심과 전국 인민의 관심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전환한다”라고 하고 있다(中共中央文獻研究室, 1982: 3). 이것은 당 사업 중심의 전환이 계급투쟁 중심으로부터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의 전환이 아니라 1976년 이후 전국적 범위에서 실시되던 린뱌오와 사인방에 대한 폭로 비판 투쟁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이것이 계급투쟁 중심의 포기와 당 사업 중심의 전환이 무관하다거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의 당 사업 중심 전환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당 사업 중심의 전환이 직접적으로는 린뱌오와 사인방 폭로 비판 투쟁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의 전환일지라도 기존의 계급투쟁 중심이라는 구호가 결국 당 사업 중심이 계급투쟁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결국 계급투쟁에서 경제건설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계급투쟁을 여전히 견지한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급투쟁의 정치적 의미를 축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제문제를 중심적 정치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당 사업 중심 전환이 장기적인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개혁개방의 선언은 아니었다.

3.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신설과 인선 결정 및 기타

11기 3중전회에서는 또한 원래의 의제에 따라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신설과 인선이 이루어졌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설치는 1977년 중공 11전대회에서 통과된 당장에 따른 것으로 사전에 합의된 의제였다(中共中央組織部外, 2000<7卷>: 181). 회의에서는 천원을 제1서기, 쩌우언라이의 미망인 텡잉차오를 제2서기, 후야오방을 제3서기, 황커칭(黃克誠)을 상무서기, 왕허쇼우(王鶴壽) 등을 부서기로 임명했다. 그런데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이후 문혁이 남긴 문제를 처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와 관련하여 11기 3중전회에서 이루어진 문혁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인선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된 것

은 중앙공작회의 이후의 상황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11기 3중전회에서는 화궈핑의 제안에 따라 개인에 대한 선전을 줄일 것을 결정하였다. 즉, 당 내에서의 호칭을 더 이상 ‘주석’ 등 관직명으로 부르지 않고 ‘동지’로 통일하며, 어떤 지도자 개인의 주장도 ‘지시’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다(中共中央文獻研究室, 1982: 8-9). 이는 문혁이 비정상적인 개인숭배에 그 원인이 있었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었지만 화궈핑의 권위와 위신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IV. 11기 3중전회에서의 개혁체제 형성과 개혁 결정 문제

11기 3중전회에서 많은 중요한 정치적 결정과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결정과 변화도 명시적인 개혁개방 선언과 개혁체제 형성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기 3중전회가 과거와는 단절되는 개혁이 시작되는 전환점으로 인정되는 것은 덩샤오핑의 권력 주도권 장악과 그것에 기초한 화궈핑과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정책적 전환이 있었다는 관점에서 기인한다. 그러한 관점에 따르면, 화궈핑을 대체하여 덩샤오핑이 최고지도자가 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으며, 보다 중요한 것이 천윈이 경제정책을 장악함으로써 경제정책의 전환이 시작될 수 있었다(Naughton, 1995: 74).

그러한 주장은 화궈핑은 복고파인데 비하여 덩샤오핑과 천윈은 차이가 있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혁파라는 관점(Harding, 1987: 43-8)을 전제한다. 그러한 전제 위에 11기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가 권력을 장악하여 개혁체제가 형성되었으며, 그것을 기초로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궈핑은 권력기반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권을 유지하였으며, 화궈핑과 덩샤오핑 및 천윈 사이의 정책의 차이도 그렇게 명료하게 구분될 수 없다.²⁰ 그렇다면 11기 3중전회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변화

20. 중앙선전부 이론국 부국장을 역임하였으며 1979년 정치논쟁의 중요한 참여자의 한

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개혁체제의 형성과 개혁개방의 결정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1. 11기 3중전회와 개혁체제

11기 3중전회에서는 중요한 권력구조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한 권력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덩샤오핑이 당 중앙의 지도 핵심이 되었다(中共中央黨史研究室, 1991: 476)고 보며, 중국 외부에서도 덩샤오핑이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Meisner, 1996: 97)거나 최고지도자가 되었다(Naughton, 1995: 74)고 본다. 그런데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의 총설계사로 일컬어지는 만큼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구조재편은 곧 개혁체제의 형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11기 3중전회에서 형성된 개혁체제는 불완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호한 것이었다.

11기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은 당의 사상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발언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권력의 주도권을 장악했다는 데 대하여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²¹ 그러나 화궈핑은 권위와 권력기반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한 주도권은 제한적이었다. 화궈핑이 실질적인 권력을 상실하기까지는 11기 3중전회에서 다시 거의 2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다.²² 거기에는 화궈핑과 덩샤오핑의 정책적 차이가 그렇게 현저하지 않았다는 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화궈핑이 여전히 강력한 권력기반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 주요한 원인이 있었다. 화궈핑의 권력은 마오쩌둥의

사람인 리홍린(李洪林)도 화궈핑이 1979년 초에 결코 세력을 잃지 않았다고 증언한다(李洪林, 1999: 257).

21. 덩샤오핑은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제기하여 사상적 주도권을 장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11기 3중전회에서의 인사교체와 관련하여 새로운 인원을 “충원만 하고 제명은 하지 않는다(只進不出)”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于光遠, 1998a: 181; 朱佳木, 1998: 57-8).
22. 화궈핑의 공식적인 실각이 이루어지는 것은 1981년 6월의 11기 6중전회이지만, 내부적으로는 1980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9차례 개최된 정치국회의에서 결정되었다(中共中央文獻研究室, 1982: 787).

지명과 사인방체포로부터 부여된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범시파 외에도 예젠잉(葉劍英), 리셴넨(李先念) 등 문혁시기 ‘생존자’들의 지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높은 대중적 위신을 유지하고 있었다.

11기 3중전회에서 범시파의 사실상의 실각은 화귀평 권력기반의 취약화를 초래했지만 문혁 생존자 그룹의 견제와 지지는 화귀평이 여전히 최고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게 했다. 문혁생존자들의 화귀평에 대한 지지는 그들의 마오쩌둥에 대한 충성과 마오쩌둥의 위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마오쩌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공고한 것이었다. 자신의 화귀평에 대한 충성이 제갈량이 후주(後主)에게 충성한 것과 같은 봉건사상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예젠잉의 자아비판(范頌, 1995: 265-6)이 그들의 화귀평에 대한 지지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화귀평의 대중적 위신을 계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것이 비교적 높았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존재한다. 화귀평이 실각했을 때 “그는 호인이다”라는 일반 인민들의 반응(楊繼繩, 2004: 169)이 하나라면, 1980년 중반 방일 후 귀국 길의 환영인파가 다른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²³ 그런데 화귀평의 그러한 대중적 위신과 지지는 마오쩌둥이 지명한 후계자로서의 권위에서 기인한 바도 크지만 그의 정책이나 스타일과도 일정한 연관성을 가진다. 이러한 사실은 11기 3중전회에서는 양개범시가 폐기되고 권력기반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화귀평은 여전히 당 내부와 대중적인 견고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11기 3중전회에서는 개혁체제 형성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완전히 화귀평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먼 길을 우회해야 했다.

다른 한편, 11기 3중전회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새로운 체제의 성격도 모호했다. 결과적으로 개혁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개혁체제라고 할 수 있을지라

23. 11기 3중전회 공보와 1980년 2월의 11기 5중전회에서 통과된 “關於黨內政治生活的若干準則”에서 개인에 대한 선전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지만, 화귀평의 방일 후 귀국길에 상하이에서는 환영하는 군중이 밀려들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南京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중이 연도 환영을 하게 하였다가 성 제1서기가 개인에 대한 선전을 적게 하도록 한 중앙의 지시를 어겼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許家屯, 1998: 64-67).

도 그러한 개혁체제가 개혁을 의제로 구성된 것도 개혁파들로 구성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11기 3중전회에서 정치세력 변동을 초래한 의제는 문혁 문제였다. 문혁이 개혁의 역설적인 전제로 받아들여 지지만, 문혁 문제의 해결이 개혁과 등장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었다. 문혁 희생자들이 반드시 개혁파여야 할 필연성은 없었기 때문이다.

문혁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11기 3중전회 이후 문혁피해자로 재야에 있던 기존의 당권파들이 복귀하여 실권을 장악해 갔다. 그런데, 그들은 개혁파가 아니라 전통체제의 옹호자들이었다(李洪林, 1999: 265-6). 그 결과 11기 3중전회 이후 형성되는 개혁체제가 개혁파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 지향적 대안과 천윈을 중심으로 하는 계획경제 위주와 시장조절을 보완으로 하는 수정된 50년대 모델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대안(楊繼繩, 2004: 12-18, 171)”을 갖는 세력으로 구성된다.²⁴ 다시 말해서 11기 3중전회 이후 형성되는 ‘개혁체제’는 개혁파와 복고파의 연합체제였으며, 개혁체제 형성의 일련의 과정이 “개혁파와 복고파의 투쟁의 과정(Harding, 1987: 57-66)”은 결코 아니었다.

문혁 수혜자이며 마오쩌둥에 대한 충성파인 범시파가 복고적 성향을 가질 개연성은 있지만, 개방과 성장과 관련된 화궈핑의 경제정책은 몇몇 문제에도 불구하고 결코 복고적인 것은 아니었고 덩샤오핑도 동의한 것이었다. 경제정책에 관한 화궈핑과 덩샤오핑의 차이보다 덩샤오핑과 천윈의 차이가 훨씬 컸다.²⁵ 그것은 11기 3중전회와 이후의 일련의 개혁체제 형성이 개혁 문제를 의제로 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화궈핑을 복고파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는 것을 의미한다. 화궈핑이 문혁 옹호라는 점에서는 보수적이

24. 하딩은 이들 두 세력을 급진개혁파와 온건개혁파로 구분한다(Harding, 1987: 78-83). 그러나 1950-60년대의 대안으로의 회귀라는 점에서 온건개혁파를 복고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5. 화궈핑은 개방이나 경제특구 건설에 적극적이었다. 1979년 화궈핑의 경제정책이 비판받은 후 1980년 6차 5개년계획(1981-1985)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자오쯔양(趙紫陽)과 중앙재정경제소조는 천윈의 안정발전 노선에 따라 년 4.5% 성장을 주장했지만, 덩샤오핑과 후야오방은 20년간 2배 성장(翻兩番)을 하기 위해서는 7% 이상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鄭仲兵, 2005: 496). 후자의 주장은 화궈핑시기 10년 계획의 공농업 8.7% 성장 계획(劉國光, 2006: 384)에 가깝다. 그런데 그 시기 실제 GDP 성장률은 연평균 10.7%였다.

었지만, 개방의 적극적인 지지자였다는 점에서는 결코 복고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개혁은 덩샤오핑이 화궈핑을 대체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화궈핑이 건재한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11기 3중전회를 기점으로 화궈핑 위상의 약화에 수반하여 개혁개방이 시작되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덩샤오핑의 주도권 장악과 개혁개방의 인과관계가 전제된다. 그러나 개혁개방은 화궈핑과 그의 정책과 단절과 동시에 연속성을 가지며 11기 3중전회는 “화궈핑과 그의 경제정책을 좌초시킨 것”(Crane, 1990: 28)이 아니라 지속과 단절의 이중적 계기를 가진다. 11기 3중전회는 복고파에 대하여 개혁파가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개혁파와 보수파가 하나”(Crane, 1990: 28)가 되어 범시파에 대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승리의 화궈핑체제 자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것은 11기 3중전회에서 불완전한 권력교체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새로운 체제가 성격도 모호했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문혁문제 해결을 통하여 등장하는 새로운 체제는 개혁파뿐만 아니라 문혁 피해자였던 전통체제의 옹호자들과의 연합체제로 구성된 그다지 개혁적이지 않은 개혁체제였다. 그러한 이원적이고 모호한 개혁체제의 구성이 시장과 계획 사이의 파동을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이후 개혁과정의 성격을 규정했다.

2. 11기 3중전회와 개혁개방

11기 3중전회에서는 경제정책에서 개혁개방과 관련된 전향적 정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권력구조의 변동도 획기적인 경제정책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11기 3중전회가 전환점으로서의 의의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1기 3중전회에서는 개혁개방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정치적 사상적 전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전환은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중요하지만 하나의 계기일 뿐이며 그 이전과 단절적인 의미

에서 전환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개혁개방은 화궈평시기에 이루어진 정책전환과 연속선상에 있으며, 11기 3중전회는 그것이 보다 근본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층위에서의 전환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11기 3중전회에서 전환이 단절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과 단절의 이중적 계기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단절적 전환과정이 아니라 화궈평 이후 일련의 정책적 선택과 전환의 과정이 누적된 결과이며 경제정책에 관한 11기 3중전회에서 결정한 전환점으로서의 의의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경제문제에 관한 11기 3중전회의 결정은 1978년 2월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의 화궈평의 정치보고(華國鋒, 1978)나 1979년 6월의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서의 화궈평의 정부공작보고(華國鋒, 1979)에 비하여 그렇게 획기적이지 않다. 화궈평은 1978년의 보고에서 저우언라이(周恩來)가 1964년 제기했지만 문혁으로 실행되지 못했던 4개 현대화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제기하였으며, 1979년 보고에서는 전면적 개혁을 명시적으로 제기했다. 그런데, 그러한 관점은 화궈평이 집권초기부터 제기한 화궈평체제의 일관적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당 사업 중심 전환을 포함한 11기 3중전회의 경제정책은 화궈평체제의 정책과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²⁶

대외개방과 관련하여서는 개혁개방의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여겨지는 외자의 직접투자 허용이 그 시기에 대외적으로 선포되었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²⁷ 그러한 결정도 개방의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확대과정의 하나의 계기일 뿐이다. 대외개방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고위 경제사절단의 서방세계 방문이 1978년 4월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이 시기에 이미 개방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⁸ 이와 관련하여

26. 화궈평은 1976년 12월 이미 “혁명은 생산력 해방이다”라고 주장하고, 4개 현대화를 다시 제기한다(華國鋒, 1978a: 44-47).

27. 대외무역부장 리창(李強)이 1978년 12월 15일에 홍콩에서 외자 이용에서 정부간 차관 금지와 외국자본의 직접투자 금지라는 두 가지 금기의 폐지를 선포하였다(劉國光, 2006: 436-7).

28. 1978년 고위 경제사절단과 시찰단의 서유럽과 일본 및 홍콩과 마카오 동남아시아 등 서방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대대적인 방문이 이루어졌다. 그 중 부총리와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급 이상의 고위관료들만도 13명이 21차례에 걸쳐 서유럽, 일본, 미국

화궈핑은 전직 고위 관료와의 대화에서 1978년 초에 이미 중공중앙은 경제 건설 중심의 방침을 확정하였으며, 서유럽과 일본 방문단 파견은 자신이 제기하고 중앙에서 동의하여 결정하였다(張根生, 2004: 5)고 밝히고 있다.²⁹ 화궈핑시기의 경제정책에 대한 ‘양약진(洋躍進)’이라는 비판이 오히려 그러한 개방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도 개방과 당 사업 중심의 전환은 최고위층 내부에서는 1978년 초에 결정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1기 3중전회에서 당 사업 중심의 전환과 관련한 논란이 없었던 이유도 자명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11기 3중전회의 결정은 이미 고위층 내부에서 동의한 것을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위원회가 권위적 결정을 통하여 공식화한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화궈핑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11기 3중전회가 아니라 1979년 4월의 중앙공작회의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도 11기 3중전회가 경제개혁에서 그렇게 획기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구나 화궈핑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경제 요소간의 불균형과 높은 지표 및 과도한 외자도입이 었지 계획경제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1979년과 1980년 천윈의 조정정책은 경제의 균형을 회복함으로써 이후 개혁을 위한 전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은 부분적으로 시장의 보완적 작용을 인정했지만 근본적으로 안정 지향적이며 계획중심적인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천윈의 조정정책은 개혁을 향한 의도하지 않은 보수주의적 우회로라고 할 수 있을지 언정 개혁은 아니었다.

게다가 양약진으로 비판받는 화궈핑의 경제정책은 화궈핑뿐만 아니라 개혁파의 주류들도 동의한 것이었다. 양약진으로 비판받은 서구의 기술과 자본의 대대적인 도입과 고속성장에 대하여 화궈핑뿐만 아니라 덩샤오핑, 리셴넨, 구무(谷牧) 등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주요 지도자 중에서 그러한 건설 방식에 대하여 유보적 입장을 가졌던 것은 천윈뿐이었다(肖冬連, 2004: 4-10). 그런 점에서 양약진에 대한 비판은 1976년 이후 경제정책의 문제에 대하여

등을 방문하였다(董濱·高小林: 17).

29. 쟡건성(張根生)은 광둥성 서기와 농업부 부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1978년 5-6월 당 시 국무원 부총리 구무(谷牧)가 이끄는 서유럽 5개국 방문단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화귀평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자 화귀평을 비판하기 위한 정치적 과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³⁰

조정정책 이후 개혁파들은 화귀평의 정책과 유사한 높은 지표를 제기하고 지속적인 개방을 추진함으로써 개혁개방을 수행한다. 그것은 개혁파들이 화귀평의 정책에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정책적 선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도 개혁은 화귀평의 정책과 단절과 동시에 연속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개혁과 관련하여 11기 3중전회가 전환점으로서 의의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혁개방과 관련된 획기적인 변화가 없었지만, 정치와 사상의 측면에서는 중대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혁 시기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평반이 전자라면 사상해방이라고 불리는 양개법시의 폐기와 실시구시의 확립이 후자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부분적인 지도부 교체를 포함하는 그러한 변화를 사상노선, 정치노선 및 조직노선을 새롭게 확립한 것으로 보며, 그것으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역사문제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과 개혁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中共中央文獻研究室, 1985: 42).

문혁 문제의 해결은 그 자체가 개혁과 직접적인 상관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문혁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균열을 해결하고 안정을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개혁을 위한 정치 사회적 전제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11기 3중전회로부터 시작된 문혁문제에 대한 해결은 문혁과정에서의 극단적 대립으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균열을 해결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평반과 개정을 통하여 1950년 중반 사회주의개조시기에 이루어진 계급분류에 의한 사회적 낙인을 제거함으로써 소상공업 자본가, 지주, 부농 등 사회주의의 ‘불가촉민’을 해방시켰는데, 그것은 잠재적인 다양한 경제행위자들을 자유화시켰다는 점에서 개혁의 전제였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이 실시구시(實事求是)와 사상해방이다. 실시구시와 사상해방은 이듬해 3월 말 그것을 제기한 덩샤오핑 자신이 4항기본원칙(四項基本

30. 중국공산당의 핵심 이데올로그의 하나인 공위즈(龔育之)는 『共產黨史』 중권 편찬 의견에서 양약진이라는 비판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龔育之, 1999: 499).

原則)을 제기함으로써 그 범위가 제한되기는 했지만, 개혁이 필연적으로 초래할 전통이론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였다는 점에서 개혁의 전제였다(李洪林, 1999: 245).³¹ 사상해방은 초기에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오히려 정치 사회적으로 해석되어, 사회적으로 다양한 급진적 자유화 요구가 제기되었고 심지어 당 내부에서조차 급진적 정치적 주장이 제기되었다.³²

그러한 예상을 뛰어넘는 정치적 사상적 자유화와 비판을 제어하기 위하여 덩샤오핑은 4항기본원칙을 제기했다. 사회주의 견지, 공산당 지도(영도) 견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견지 및 마오쩌둥 사상 견지를 내세우는 4항기본원칙은 사상해방 혹은 11기 3중전회 이후 만들어진 정치적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시도로 여겨지며, 심지어는 문혁시기 린뽀오의 ‘네 가지를 잊지 말자(四個念念不忘)’의 재판이자 사상해방을 타격하는 ‘4개의 몽둥이(四根棍子)’로 해석되기도 한다(胡績偉, 1997: 88-94). 그렇지만 그것이 사상해방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4항기본원칙이 정치적 사상적 측면에서는 사상해방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작용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상해방이 현실의 변화와 모순되는 전통 사회주의이론을 폐기하는 유효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11기 3중전회는 경제개혁 자체를 결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에서는 전환점으로서의 의미보다는 화귀평체제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정책 변화와 연속선상에 있었다. 경제건설로의 당 사업 중심의 전환도 그러한 정책변화를 당의 권위적 결정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만 일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제건설 중심 노선은 11기 3중전회에서 선언된 사상해방과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의 전제위에서 개혁개방으로 나아갈 개연성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11기 3중전회는 개혁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연속적 과정이 비약할 수 있는 개혁의 정치적 사상적 기초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1. Tang Tsou는 중국의 개혁이 11기 3중전회의 정치사상 노선과 4항기본원칙 사이의 중간경로(the middle course)를 선택했다고 본다(Tang Tsou, 1988: 222).

32. 그것을 대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시단(西單) 민주벽’으로 상징되는 민주화·자유화 요구와 노동자와 하방된 청년들의 청원운동, 그리고 당 내부에서의 마오쩌둥 비판과 민주화 요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蕭冬連(2008: 1-247) 참조.

V. 결론

중앙공작회의와 11기 3중전회에서는 문혁문제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제에 대한 처리, 그리고 경제문제에 대한 결정과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신설과 그에 따른 인선이 이루어졌다. 문혁문제 처리의 직접적 결과로서 문혁시기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평반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전제이자 결과로서 양개범시가 폐기되고 사상해방이 선언되었다. 또한 평반을 통한 숙청된 간부들의 복귀와 그와 관련된 책임자들에 대한 비판은 최고지도부 내부의 정치권력의 지형 변화를 초래했다. 그렇지만 권위와 권력기반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최고지도자 화궐평의 지위는 여전히 견재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한 변화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비하여 경제문제는 대부분이 기존에 합의된 의제로 논란이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의미 있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장화가 논의되지 않은 것은 물론 호별영농제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신설과 인선은 당 조직기구의 정비라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지만 개혁이나 개혁체제 형성과 직접적 연관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개혁개방이 결정되고 개혁체제가 형성되었다는 의미에서 역사적 전환점으로서 11기 3중전회의 의의는 그렇게 자명하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11기 3중전회에서 이후 개혁을 이끌어 나갈 개혁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했지만, 화궐평이 여전히 견재했다는 점에서 개혁체제로의 전환은 불완전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개혁체제로의 전환은 개혁이 아니라 문혁 문제 해결이라는 의제를 통하여 문혁피해자가 복권됨으로써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혁체제는 개혁과뿐만 아니라 전통체제를 옹호하는 보수파 혹은 복고파와 연합으로 구성되었다. 그것은 중국 개혁체제가 그렇게 개혁적이지 못하고 모호하거나 모순적 성격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모호성과 모순성이 점진성과 더불어 “개방과 위축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개혁 과정의 특성

(Baum, 1994: 5-9)을 초래했다. 그런데 개혁체제의 그러한 모순성과 개혁의 전진과 후퇴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역전되지 않고 진전된 이유에 대하여는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혁개방은 11기 3중전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화귀평체제와 연속되는 정책적 선택이 누적된 결과였다. 그런 점에서 11기 3중전회에서 결정한 것은 전환점이 아니라 중요하지만 연속적 과정의 하나의 계기였다. 당 사업 중심의 전환은 당의 최고 권위체의 권위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기존의 합의를 추인한 것에 불과했으며 화귀평의 정책과 연속선상에 있었다.

문혁문제의 해결과 사상해방이라는 점에서 11기 3중전회는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문혁문제의 해결은 정치사회적 균열을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체제에 ‘불기촉민’으로 억압당하던 다양한 경제행위자들을 자유화시켰다는 점에서 개혁의 필요조건이었다. 또한 사상해방은 경제발전을 위하여 현실적 변화와 모순되는 전통사회주의 이론의 제약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점에서 개혁의 전제였다. 그런 점에서 11기 3중전회는 개혁을 위한 불가결한 전환점이었다. 그러나 11기 3중전회는 불완전하고 모호한 개혁체제를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속적 개혁 결정 과정의 중요하지만 하나의 계기일 뿐이며 역사적 전환점으로서의 의의는 제한적이고 약간은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안치영. 2004. 「1978년 眞理標準討論과 그 정치적 의의」. 『한국정치연구』 제13집 1호 pp. 155-182.
- Baum, Richard. 1994. *Burying Mao: Chinese Politics in the Age of Deng Xiaopi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rane, George T. 1990. *The Political Economy of China's Special Economic Zones*. Armonk: M.E. Sharpe.
- Harding, Harry. 1987. *China's Second Revolution: Reform after Mao*,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 Meisner, Maurice. 1996. *The Deng Xiaoping Era: An Inquiry into the Fate of Chinese Socialism, 1978-1994*. New York: Hill and Wang.
- Naughton, Barry.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oenhals, Michael. 1991. "The 1978 Truth Controversy." *The China Quarterly* 126. pp. 243-268.
- Schoenhals, Michael. 1996. "The Central Case Examination Group, 1966-1979." *The China Quarterly* 145. pp. 87-111.
- Tsou, Tang. 1988. *The Cultural Revolution and Post-Mao Reforms: A Historical Perspective*.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Yu, Gugngyuan. 2004. *Deng Xiaoping Shakes the World: An Eyewitness Account of China's Party Work Conference and the Third Plenum* (November-December 1978), Norwalk: EastBridge (아래 于光遠, 1998a의 영역본).
- Vogel, Ezra F. 2004. "Introduction to the English Edition." in Yu (2004): ix-xvii.
- 姜華宣·張尉萍·肖牲 主編. 2001. 『中國共產黨重要會議紀事(1921~2001)』.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 龔育之. 1999. 『龔育之論中共黨史』.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 戴煌. 1997. 『胡耀邦與平反冤假錯案』. 香港: 鏡報文化企業有限公司.
- 董濱·高小林. 2000. 『突破: 中國特區啓示錄』. 武漢: 武漢出版社.
- 鄧小平. 1982. "解放思想, 實事求是, 團結一致向前看." 中共中央文獻研究室(1982). pp. 15-24.
- 鄧小平. 1993. "中國共產黨第十二次全國代表大會開幕詞." 『鄧小平文選』 3卷. 北京: 人民出版社. pp. 1-11.
- 范碩. 1995. 『葉劍英在1976』.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 石仲泉·沈正樂·楊先材·韓鋼. 1998. 『中共八大史』. 北京: 人民出版社.
- 宋任窮. 1996. 『宋任窮回憶錄(續集)』. 北京: 解放軍出版社.
- 楊繼繩. 1998. 『鄧小平時代: 中國改革開放20年紀實』. 北京: 中央編譯出版社.
- 楊繼繩. 2004. 『中國改革年代的政治鬭爭』. 香港: ECP.
- 葉劍英. 1996. "在中央工作會議閉幕會上的講話(1978. 12. 13)." 『葉劍英選集』. 北京: 人民出版社. pp. 493-502.
- 于光遠. 1998(a). 『我親歷的那次歷史轉折: 十一屆三中全會臺前幕後』 北京: 中央編譯出版社.
- 于光遠. 1998(b). "1978年「北京市委爲天安門事件平反」真相." 『百年潮』(1998年 3期). pp. 34-39.
- 于光遠·王恩茂 等. 1998. 『改變中國命運的41天: 中央工作會議·十一屆三中全會親歷記』. 深圳: 海天出版社.
- 李先念. 1992. 『李先念論財政金融貿易(1950~1991)』 下. 北京: 中國財政經濟出版社.
- 李正華. 2002. 『中國改革開放的醞釀與起步』. 北京: 當代中國出版社.
- 李洪林. 1999. 『中國思想運動史 1949-1989』. 香港: 天地圖書.
- 張根生. 2004. "聽谷牧談親歷的幾件大事." 『炎黃春秋』 2004年 2期. pp. 3-5.

- 張樹軍·高建民. 2001. 『共和國年輪 1978』.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 程中原·王玉祥·李正華. 1998. 『1976-1981年的中國』.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 鄭仲兵 主編. 2005. 『胡耀邦年譜資料長編』上, 下. 香港: 時代國際出版有限公司.
- 朱佳木. 1998. 『我所知道的十一屆三中全會』.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 中共中央黨史研究室 編. 1991. 『中國共產黨的七十年』.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1982. 『三中全會以來 重要文獻彙編』上, 下. 北京: 人民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1985. 『關於建國以來黨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注釋本(修訂)』. 北京: 人民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2004. 『鄧小平年譜(1975-1997)』上, 下.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 中共中央組織部. 1999. “平反冤假錯案, 落實幹部政策, 促進和推動組織工作的全面撥亂反正.” 中共中央黨史研究室科研管理部 編. 『撥亂反正: 中央卷』上.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pp. 172-257.
- 中共中央組織部·中共中央黨史研究室·中央檔案館. 2000. 『中國共產黨組織史資料』.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 中央黨史研究室第三研究部 編. 2005. 『鄧小平與改革開放的中國』.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 中央文獻研究室. 2005. 『陳雲傳』下.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 陳雲. 1995. “關於當前經濟問題的五點意見(1978. 12. 10).” 『陳雲文選』3卷. 北京: 人民出版社. pp. 235-238.
- 肖冬連. 2004. “1979年國民經濟調整方針的提出與爭論: 大轉折紀事之一.” 『黨史博覽』2004年 10期. pp. 4-10.
- 肖冬連. 2006. “中國改革初期對國外經驗的系統考察和借鑒.” 『中共黨史研究』(2006年 4期). pp. 22-32.
- 肖冬連. 2008. 『歷史的轉軌: 從撥亂反正到改革開放』. 香港: 香港中文大學出版社.
- 許家屯. 1998. 『許家屯回憶與隨想錄』. 香港: 明鏡出版社.
- 胡喬木. 1993. “黨的十一屆三中全會的重大意義(1979年1月6日在中國社會科學院全院大會上的報告)” 『胡喬木文集』第2卷. 北京: 人民出版社. pp. 93-116.
- 胡耀邦. 1982. “在中央政治局會議上的發言(1980年11月19日).” 中共中央文獻研究室 (1982). pp. 735-747.
- 胡績偉. 1997. 『從華國鋒下台到胡耀邦下台』. 香港: 明鏡出版社.
- 華國鋒. 1978(a). “在第二次全國農業學大寨會議上的講話(1976年12月25日).” 『華主席的重要講話文章題詞彙編』1. 長沙: 中共湖南省委辦公廳資料室. pp. 27-51.
- 華國鋒. 1978(b). “團結起來, 為建設社會主義的現代化強國而奮鬥.” 『中華人民共和國第五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一次會議文件』. 北京: 人民出版社. pp. 1-70.
- 華國鋒. 1979. “政府工作報告: 1979年6月18日在五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二次會議上.” 『中華人民共和國第五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二次會議文件』. 北京: 人民出版社. pp. 3-52.

The Ambiguous Turning Point: The Third Plenum of the 11th CC CCP Reconsidered

Ahn, Chiyong

Uni. of Incheon, Dept. of Chinese Language and Cultural Studies

The Third Plenum of the 11th CC CCP is considered as the historical turning point which marks the decisive break with the past and the beginning of China's reform era. Many historical problems left by the Cultural Revolution were resolved at the Third Plenum, which resulted in the reconstruction of the political powers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policy. But regardless of the weakening of the authorities and power bases, the status of the Hua Guofeng as the top leader was not changed. And the becoming new regime was not so reformist because it was reshaped by the coalition of the reformers and the rehabilitated conservative old cadres who had been purged during the CR. Though there was the breakthrough at the resolving of the CR problems and 'the thought liberation' at the Third Plenum, the reform and open door policy was not a rupture but a continuum of Hua Guofeng's policy. So the transformation at the Third Plenum was not so clear cut but incomplete and ambiguous.

Key Words: the Third Plenum of the 11th CC CCP, reform and open door policy, reform regime, historical turning point, the ambiguous transformation